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6강 루소의 정치사상과 민족주의의 등장

제16강 1교시

◆ 루소의 정치사상 2

『사회계약론』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한 때 『민양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사회상태와 자연상태를 대비시키면서 사회가 낳은 악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 루소는 **주권sovereignty**을 시민에게 부여한다. 원래 sovereignty는 군주에게 붙이는 말이었는데 루소는 이 말을 일반시민에게 붙인다. 후대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으로 그 의미가 변한다.

모든 왕정은 필연적으로 절대왕정으로 귀착한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자신의 이권만을 쟁긴다. 이것은 바로 주권의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지 위원회일 뿐이다.

⇒ 루소가 볼 때 정부는 단지 계약의 산물일 뿐이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계약을 가하고 예속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계약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루소의 생각 중 중요한 것은 입법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일반의지general will**이다. 일반의지는 국민 모두의 의사이며 이것이 국가 전체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일반의지가 표현된 것이 법**이다.

루소에게 행정권, 즉 정부의 권력은 일반의지에 철저하게 복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일 뿐이다.

⇒ 현대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행정부의 비대화이다.

모든 시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지와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대혁명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주의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일반의지, 즉 국민전체의 의지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

루소는 자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규모가 작은 국가라고 본다. 루소는 프랑스처럼 이미 때묻고 거대한 국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도 말한다. 그래서 『에밀』을 쓴 것이다.

⇒ 19세기 루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들이 아니고 독일관념론자들과 낭만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흔히 루소를 낭만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셸링, 괴테, 뢰넨도 루소에 열광한다. 칸트는 루소의 사상을 넓은 지평에서 보편화시켜 세계시민론과 영구평화론을 제시한다.

헤겔의 시대는 보수주의와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던 시대였다. 프랑스대혁명의 발생으로 귀족들이 위기감을 느껴 신성동맹Holy Family을 맺는다. ⇒ **보수주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으로 유럽에는 **민족주의**가 대두한다.

▶ 참고자료

독일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n Nation]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로이센이 위기에 처하자 철학자 J.G. 피히테가 적군의 점령하에 있는 베를린학사원 강당에서 행한 우국 대강연.

1807년 12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있었다. 이 강연을 통해 피히테는 독일 재건의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의 진작(振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독일 국민의 분기(奮起)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피히테[Fichte, Johann Gottlieb, 1762.5.19~1814.1.27]



독일의 철학자,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 칸트가 아직도 통일을 얻지 못한 이론이성(理論理性)과 실천이성(實踐理性)을 오로지 후자에 중점을 두으로써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실천적·주관적 관념론이었다. 헤겔로 계승된 독일관념론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활동분야 철학

출생지 독일 작센주 라메나우

주요저서 《모든 계시의 비판시도》(1792) 《독일국민에게 고함》(1807~1808)

주요작품 〈신의 세계지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근거에 관하여〉(1798)

보수주의는 기독교 사상의 부활을 가져온다. 유럽의 보수주의가 바로 기독교사상이었기 때문이다. ⇒ 헤겔의 철학도 기독교사상의 철학적 각색이라고 볼 수 있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6강 2교시

◆ 민족주의의 등장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보편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volk(민중, 민족) 개념의 등장

→민족주의는 보편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다른 문화의 고유성과 차이를 인정

예) Herder, Humvoldt, Grimm

특수성particularity의 단위⇒ 헤겔은 **국가**라는 단위를 특별히 부각시킨다.

시민사회는 욕망과 다원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인간을 욕망과 다원성의 수준에서 이성과 합일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는 것이 국가이다.

칸트가 루소의 철학을 계승하여 그것을 더 보편화시켜 세계시민론으로 나아갔다면 헤겔은 국가철학으로 나아간다. 19세기에는 콩트, 스펜서, 밀 등이 계몽사상과 경험주의를 이어받아 실증주의 및 공리주의를 발전시킨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헤겔의 변증법, 프랑스 사회주의, 영국의 고전경제학을 종합해서 사적유물론의 사유를 전개한다.

현대 자유주의의 원리가 가장 종합적으로 잘 나타난 책이 밀의 『자유론』이다.

▲동북아에서의 민족주의

동북아 사회에서는 한, 중, 일 모두 17세기를 전후한 시대에 도래했던 정치적인 것, 새로운 시대가 막혀버린다. 한중일 모두 쇄국정책을 고수한다.

1) 중국이 가장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화려했던 시대가 **당 시대**였다. 당은 원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명이 등장한다. 명은 이민족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게 된다. 그리고 중화주의가 크게 발달한다.

2) 한국은 중국이 만주족인 청나라에게 정복당한 후 중국과 교류의 문을 닫고 일본과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쇄국정책으로 간다.

3)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2년에 센코쿠(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이후에는 어떤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 쇄국의 길을 걷게 된다.

⇒ 동북아사회에서는 민족주의적인 담론이 전개된다.

예) 중국의 중화주의적 담론들, 조선의 실학, 소중화사상, 일본은 일본적인 것(미학적인 것)을 강조.

17세기 이후에 천주교 신부들이 대거 동북아에 들어오면서 서구 학문을 소개했으나 대개는 시대착오적인 것들이었다. 19세기에야 본격적인 서구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19세기 후반에는 민권사상이 전개됨.

⇒ 하지만 민권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헤겔철학을 도입 국가철학을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사상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의 사상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모더니티를 무조건 모방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양주의가 등장한다. 그러나 동양주의는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다.

동양주의의 예)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사상